

에너지政策의 基本方向

動力資源部 —

1. 内外 에너지環境

(1) 國際에너지環境의 展望

〈需 給〉

- 國際에너지 需給은 石油의 減産危脅과 價格不安에 不拘하고, 석유는 世界에너지 供給의 46.5%를 担当하고 있어 主宗에너지 源으로 變함이 없을 것임.
- 石油는 最近, 消費國의 長期沈滯와 消費節約으로 200萬~300萬B의 供給過剩狀態이나,
 - '85年 以後 正常狀態에서도 供給이 需要에 미치지 못하는(日80萬B不足) 構造의인 供給不足狀態를 나타낼 展望임. (IEA展望)
- 構造的인 石油不足과, 政治情勢에 따라 不安한 石油供給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,
 - 世界 各國은 原子力, 石炭, 가스 等「脫石油政策」을 적극 推進하고 있음.

〈價 格〉

- 原油價格은, 最近 國際原油市場의 供給過剩으로 一時的으로 小康狀態에 있으나.
- '80年代에도 最少한 國際인플레率에 相応하는 原油價引上은 繼續될 것으로 展望되며,
 - 研究機關마다 差異는 있으나, '85年度 以後에는 50弗 (IBRD) ~ 58弗 (SRI/WEFA) 로 展望함.

(2) 우리나라 에너지需給의 現況과 展望

- 우리나라는, 最近

- 圓滑한 石油供給
- 石炭生産의 好調(저탄: 60日分)
- 適正한 豫備電力(豫備率: 20%)

으로

그 어느때 보다 가장 안정된 에너지需給 狀態에 놓여 있으나,

— 根本的으로는,

- 에너지 供給面에서의 海外依存度 深化와
- 에너지 需要面에서의 에너지 多消費型 産業構造의 問題點을 안고 있음 卽,

〈供給構造面〉

- 우리나라 에너지의 海外依存度가 深化되고 있고,
 - 특히, 石油依存度가 過多하여 「石油不安時代」에 經濟의 脆弱性을 露出하고 있음

海外依存度: 62.3% ('76) → 73.7% ('80)

石油依存度: 47% ('76) → 60% ('80)

- 国内賦存資源의 貧弱과 代替에너지開發의 限界로 「에너지의 自給度」가 낮아지고 있음
 - 石炭增産: 賦存狀態의 貧弱과 採炭与件의 惡化
 - 代替에너지開發: 潮力·太陽에너지·風力 等은 試驗開發段階로서 大量'實用化에는 制約

〈需要構造面〉

- '60, '70年代의 高度成長에 따라 우리나라 産業構造가 에너지多消費型으로 이 끌어져 왔 으며,
 - 産業別 에너지投入比率이 先進國보다 높 아 國際競爭力이 떨어지고 있음

	韓國	美國	프랑스	日本
에너지의 GNP 탄성치 (75-79)	0.96	0.42	0.34	0.30

—또한 '70년대後半以後의 油價引上和 石油消費의 增加로, 石油輸入代錢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, 國民經濟의 큰 負擔이 되고 있음.

	'70년	'80년
石油輸入代錢	1	60(億弗)
GNP 의	1.3	10.5(%)
輸出額의	11.1	35.0(%)

2. 政策의 基本方向

이러한 狀況아래서, 에너지政策의 基本方向은, 첫째, 5次 5個年 計劃 期間中の 年平均經濟 成長率 7.6%에 副應하기 위한 에너지를 蹉跎없이 供給하기 위하여, 現在의 에너지供給 能力을 50%擴大하고

44百万톤	(1.5倍)	67百万톤
'80	→	'86

둘째, 에너지供給源을 多元化하여 에너지 供給構造의 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「脫石油政策」을 過敢히 推進하며

石油依存度:	60.3%	→	49.8%
	'80		'86

셋째, 에너지의 節約과 利用合理化를 效率의 으로 推進하여 外貨의 節約과 함께 企業競爭力을 提高토록함.

節約目標:	$\frac{2\%}{'80}$	→	$\frac{5\%}{'86}$	→	$\frac{10\%}{'90}$
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

3. 實踐의 基本方向

(1) 에너지의 円滑한 供給과 脫石油化 政策

〈總 括〉

- 現在의 에너지供給能力에 比하여 50%의 追加的인 에너지供給能力을 確保함과 同時에, 에너지 安定供給을 위한 備蓄을 위해서는
- '86년까지 總 12兆4,623億의 投資財源이 所 要됨.
- 이中 60%가 電源開發에 投資될 것이며,
- 이中 20%가 石油備蓄 등 石油部門에,
- 이中 7%가 炭鐵村開發 등 石炭部門에 投資될 것임.

〈「脫石油化政策」의 推進〉

- 石油로부터 받는 苦痛과 不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形態이든, 石油依存度를 낮추는 에너지開發計劃은 不可避함.
- 石油를 代替할 수 있는 에너지源으로서는 多樣하게 想定할 수 있으나
 - 石炭은 賦存資源의 貧弱과 採炭條件의 惡化로 現水準以上の 大幅的인 增産은 困難하며,
 - 風力, 潮力, 太陽熱, 地熱 등은 아직까지 研究開發段階이므로 大量으로 實用化 할 수 있는 段階가 되지 못하므로,
- 中期的으로는
 - 原子力을 中心으로 하는 電源開發과
 - 多目的댐의 建設을 통한 水力의 開發, 그리고
 - LNG導入體制를 통한 家庭燃料의 革新을 通하여 現在의 石油依存度를 大幅 낮추고 에너지源을 多元化하여 安定된 供給構造를 維持토록 하겠음 卽,
- ① 原子力의 境遇는 1991년까지
 - 5基를 竣工하고,
 - 5基를 着工하며,
 - 3基를 繼續事業으로 推進함으로써
- 總發電中 原子力의 比重을
 - 現在의 6%에서 → '91年度에는 41.5%로 높임으로써 脫石油電源開發을 이룩하려고 함.
- ② 한편, 水力의 境遇에는 建設單價는 높은 便宜이 나, —但 建設만 해놓으면 發電單價가 낮고 永久的으로 發電할 수 있기 때문에,
 - 水力發電의 開發을 積極 推進하되,
 - 經濟性을 높이기 위하여 用水活用, 觀光資源開發, 가뭄과 洪水 調節 등 多目的댐建設을 通하여 國產電力生

産을 促進하려고 함.

- ③ 또한, 脫石油政策의 一環으로 LNG事業도 積極 추진하려고 하는 바
 - LNG는 無公害의 低廉한 燃料로서
 - 石油에 比하여 可採年數가 長고 (50年)
 - 地域的으로 散在되어 있어 에너지源의 多元化와 長期安定確保가 可能할 뿐 아니라,
 - 石炭增産의 限界로 家庭用燃料을 煉炭偏重에서 점진적으로 脫皮해야 하기 때문에
 - 公害가 없고, LPG나 都市가스에 比하여 低廉한 LNG를 都市中産層 以上에 보급하고자함.
 - 이를 위하여는 '86年까지는 年間 300萬噸規模의 LNG受入基地를 建設하되
 - 初期에는 發電燃料로 使用하고
 - 漸進的으로 家庭用 燃料로 轉換하고자 함.

約과 合理化를 위해서는,

- ① 中長期的으로는 우리의 産業構造를 점진적으로 에너지節約型 産業構造로 改編해 나가되,
- ② 短期的으로는
 - 節約效果가 크고, 손쉬운 部門부터 重點的으로 實施하되.
 - 産業部門, 輸送部門, 家庭 및 商業部門等 部門別로 特性에 맞는 施策을 수립하여 積極的으로 推進해 나갈 것임.
- ③ 特히 에너지의 消費量이 많은 産業部門에 對해서는,
 - 強力한 行政規制 및 勸奨과 함께 積極的인 金融·稅制支援을 通하여
 - 低效率의 熱設備의 改替를 促進하고
 - 熱併合發電設備의 投資를 奨勵하며
 - 中小企業에 對해 積極적인 技術支援을 해 나갈 것임.
 - 에너지節約만은, 우리의 意志와 努力에 따라 結果를 거둘 수 있는 部門이므로 에너지節約은 “第2의 에너지생산”이란 觀點에서 계속해서 汎國民運動을 展開해 나가겠음. *

(2) 에너지의 節約과 利用合理化

- 에너지賦存資源이 貧弱한 나라에서는 에너지의 生産에 못지않게 에너지節約과 利用의 合理化가 重要한 課題인 바, 에너지의 節約

□ 參考資料 □

아시아各國의 GNP成長率

國 別	年 度	1980	1981	1982
日 本		4.2%	4.1%	5%
中 共 華 人 民 共 和 國		5%	3.5%	4.5%
台 灣		6.7%	5.5%	7%
싱 가 포 르 (G D P)		10.2%	9%	8.5%
홍 콩 (G D P)		10%	8%	7%
필 리 핀		5.4%	4.5%	5%
인 도 네 시 아 (G D P)		9.6%	8%	8%
泰 國 (G D P)		6.3%	6%	6.5%
韓 國		-5.7%	6%	8%
말 레 이 지 아		8%	7%	7.5%